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송기도



많은 사람은 정치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때나 조금 신경을 쓰지 평소엔 정치 이야기는 TV나 라디오를 꺼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정치인을 싸움이나 하고 모두 '씩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정치 자체를 외면해 버린 탓이다. 2008년 시시주간지인 시사저널이 '미디어 오늘'에 의뢰해 발표한 직업별 신뢰도 여론조사를 보면 33개 직업군 가운데 소방관과 간호사가 1, 2위를 차지했고, 정치인은 꼴찌(33위)에 머물렀다. 왜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않을까? 무엇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한 것일까? 만일 한 국가에서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면 그 국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신뢰(Trust)'에서 신뢰는 한 사회의 중요한 자

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관습, 도덕, 협동심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는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이 어렵거나 협력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신록이 푸름을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멋진 꿈(Vision)을 디자인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인생의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청소년기에 각자의 꿈을 품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한국사회의 신드롬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안철수 교수가 그렇고, 동양인 최초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그렇다. 자기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래의 꿈을 반드시 글로 적고 꿈을 이룬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

였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켜줍니다'라고 광고를 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광고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 중단 2.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3. 검역단 파견 현지조사 4. 학교 및 군대급식 중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나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정부는 미국에 검역단을 파견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발표했으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온 자료를 분석했을 때 검역중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2500년 전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자, 공자는 "풍족한 식량(糧), 충분한 병력(兵), 백성의 신뢰(信)가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 "어쩔 수 없이 한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가운데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하나?" 공자는 말할 길 "병력을 버려야 한

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식량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모두 죽지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했다. '논어' 안연 편에 나오는 자공과의 문답에서 공자는 '정치 3요소'로 '식량, 병력, 신뢰'를 꼽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임을 역설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놀랄만한 경제발전 덕에, 우리나라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최고의 경제적 생활을 누리고 있다. 또 군사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백성의 신뢰'는 어떤가? 2008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시위', 그리고 '천안함 사태'는 우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광우병 관련 뉴스가 최근 TV나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국가 운영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양치기 정부'를 누가 믿는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국민의 신뢰다. 국회의원 수가 많든, 당원 수가 많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는 얻는 것이 바로 정치의 요체다. <전북대 교수-전 콜롬비아대사>

‘양치기 정부’와 신뢰사회

기고



서정성

청소년의 달인 5월이 중순으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밝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날 확률은 생물학적 확률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기적이자 놀라운 그 자체이다. 한 사람의 존재까지는 이 지구의 무게만큼 무겁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인데 그저 대충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길 들어선 탓에 눈앞의 성적에만 관

청소년이여, 꿈을 품어라

심을 가질 뿐,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인생에서 청소년기는 인생 전체의 향로를 결정짓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신록이 푸름을 더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멋진 꿈(Vision)을 디자인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인생의 멘토로 삼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청소년기에 각자의 꿈을 품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한국사회의 신드롬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안철수 교수가 그렇고, 동양인 최초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그렇다. 자기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래의 꿈을 반드시 글로 적고 꿈을 이룬 자신의 미래 모습을 구체

적으로 상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 여러분의 꿈은 대부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왜 나는 그 직업을 꿈꾸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동기가 희미하면 실천력도 약한 법이다. 잘 아는 이야기지만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그리고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우리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차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

다. 내 꿈을 이룸으로써 많은 사람이 더불어 행복해 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꿈을 이뤄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생각과 나타한 습성이다.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어떤 일도 그저 저절로 이뤄지는 법이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숱한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의연하게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인격은 한층 성숙하고 자신이 설정한 그 꿈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줄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미래는 간절함과 열정이라는 위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과감히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폴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존 업다이크(John Updike)의 명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짧은 글의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예초에 자원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광주시의원·인과 의사>

기고



장맹수

농산물 판매장에 가거나 길거리를 가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하는 농산물이 있는가 하면, 플래카드에만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표시해 판매하는 농산물도 있다. 이 중 어느 것이 진짜 친환경 농산물인지 헷갈린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200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급속도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화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 사용하고, 농·축·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축·업산물

친환경 농산물 신뢰 더 높아지고 있다

을 말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는 유기·무농약·저농약 재배의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농가가 실천 가능한 것을 정부에 신청해 인증을 받은 후 종류별 인증기준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하고, 그 과정 중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가 기관인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법령에 따라 인증심사 및 인증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품관원의 자체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친환경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18개 전문 인증기관이 대부분의 인증업무를 처리하고, 품관원은 전문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과 인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 인증기관이 인증 심사원 부족 및 책임감 결여로 인증업무를 사실상 처리하거나,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재배과정 중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품관원 전남지원에서는

병충해 발생 최시기 등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한 결과 농약 살포 등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인증농가를 다수 적발해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인증심사를 부실하게 한 전문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또한 전문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농가 500명당 상근 심사원을 1명 이상 확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증 농업인 5만 6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전문 인증기관과의 간담회 및 인증심사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촉구했다. 파종·이앙기 일제점검 시 '인증필지 현장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한 농가를 적발하면 바로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또한 판매점에 대한 불시 점검으로 위반행위 26건을 적발해 고발하거나 인증을 취소했다. 특히 5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 거짓표시 행위자를 적발해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를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권유로 친환경 인증신청을 해서 안 된다. 둘째, 시비·잡초·병해충 관리 등 주요 농작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 등을 기록한 영농관련 자료를 성실히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셋째, 종자소독이나 작물재배 시 유기합성 농약 사용금지 등 각 항목별로 정해진 인증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넷째, 인증을 받은 생산물에 인증종류 및 인증마크·인증기관명·인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은 정부가 정한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문 인증기관 및 품관원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며, 시·군 및 지역농협에서는 농가 인증기준을 지키도록 적극 지도하는 등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져 서울·경기·인천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높은 가격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돈 잃고 신용정보 유출되는 인터넷 대출 경매 '주의'

얼마 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경매방식'을 통한 대출로 수익을 쟁겨보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이 인터넷 경매방식 대출은 여러 가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원금마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터넷 대출 경매업체의 투자설명회에 가면 이 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대출 경매방식은 먼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금액과 이자를 인터넷에 띄운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가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되는 구조이다. 대출가는 금액은 최저 20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 정도로 하는데 금리는 최고 연 50~60%나 된다. 인터넷 대출이지만 사실상 매우 높은 고리 사채여서 돈 좀 있고 그것을 굴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하다.

그러나 간단한 신용정보와 신용등급만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보니 투자금을 때릴 위험이 아주 높다. 또한 일반 펀드나 주식처럼 원금 손실이 있는 투자위험은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다. 대출이 성사되면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각각 이 알선업체에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런 온라인 대출 경매업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많고, 경제나 대출이라는 단어를 치면 팝업으로도 많이 뜬다. 그러나 안전적이지 못하고 도깨비 시장 같은 이런 데에 잘못 들어가 돈 잃고 신용정보만 유출 당하는 그런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런데 참가해서 신용정보가 나중에 일반 은행 대출할 때 개인신용 레드(red)고객으로 분류돼 대출도 못 받거나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한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영동

어가면 아주 많고, 경제나 대출이라는 단어를 치면 팝업으로도 많이 뜬다. 그러나 안전적이지 못하고 도깨비 시장 같은 이런 데에 잘못 들어가 돈 잃고 신용정보만 유출 당하는 그런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런데 참가해서 신용정보가 나중에 일반 은행 대출할 때 개인신용 레드(red)고객으로 분류돼 대출도 못 받거나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한다. ▲김정수·광주시 북구 운영동

시설

MB정부 불법사찰 '호남 인맥' 겨냥했더니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됐던 '호남 인맥 죽이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대립각을 보인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현 정부 내 호남 인맥 제거 정황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진경탁(구속 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과장의 컴퓨터에 보관돼있던 불법사찰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두언·현기환 의원, 민주당 백원우·이석현 의원 등 정권에 날을 세웠던 여야 의원과 정부 및 산하기관 고위 관료를 지낸 호남 출신 인사들이 주 사찰 대상이었다. 2009년 1월 작성된 '해아할 일 12'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사하구청장 조정화 : 현기환 의원이 대통령 비방. 국회의원은 현 의원을, 산하단체는 광주은행 감사를 타깃으로'라고 적시돼 있다. 당시 강경수 광주은행 감사는 한나라당 공관을 당협 위원장을 지낸 정두언 의원 계여서 '호남

인맥 죽이기'의 실체를 드러낸 셈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계우 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이사장(현 광주광역시 부시장)을 "따라붙어서 잘라라"라고 적었던가 하면 농식품부 내 호남 대표주자였던 정승 전 식품산업본부장을 '1급 중 꼭 날려야 할 사람'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우재창 전 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교수로 재직 중인 목포대에 '사찰'해서라도 정리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 현 정부 내 호남 출신 공직자들은 이런 사람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호남 출신 인사를 무차별 불법사찰하고 제거에 나섰다든 사실의 방증인 셈이다. 정권이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은 법치를 뒤흔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행위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돗물 오염사태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광주시 수돗물 오염사태와 관련, 예초 약품 공급밸브를 잘못 조작해 사고를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가 "공사 중 밸브를 건드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 측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직접 근로자들이 밸브를 잘못 조작해서 오염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해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운영정상장 소속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사를 감독했을 뿐 밸브를 만지거나 밝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근로자들은 "우리만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씌우려고 하느냐"며 "공무원들도 현장에 있었으니 밸브를 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업체 대표인 백 모씨도 "사고 당일인 12일 오전 10시부터 정수장 직원들이 잇따라 찾아와 '무언가 만진 것이 없느냐'고 묻고 돌아갔다"며 "당시엔 통상적인 업무인 것으로 알았으나 지나

고 보니 정수장 직원들이 그때 이미 사고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원인 규명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돗물 오염사태는 단순 사고가 수많은 수용가에 피해를 주고 불신을 초래하는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원인 규명해야 한다. 만일 공무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덮어씌우려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극장대처로 인한 비난은 물론 책임 전가에 따른 도덕성 훼손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들은 "사고장들이 조작을 잘못했다면 해당 건설업체가 음부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찰은 산성 수돗물 공급의 직접적 원인이 된 약품도레인 밸브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와 감독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 같은 위험성을 근로자들에게 고지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원인 규명 없는 대처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無等鼓

2012 팔도 프로야구가 접입가경이다. 어느 한 팀의 독주도 없고 강팀과 약팀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선동열 감독 영입으로 삼성과 더불어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됐던 KIA 타이거즈는 이종범의 은퇴, 주포인 이범호, 김상현의 동반부상과 팀 주축투수들이 한기주, 양현종, 손영민 등의 잇단 부상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KIA 팬들은 조급증을 내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까? 선동열 감독이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고 팀의 미래를 보고 '급진 리빌딩'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조급증을 내지 않고 이범호와 한기주 등 부상 선수들에게 완벽하게 몸을 만든 후 복귀하라고 주문한다. 또 한 박지훈, 윤완주, 이준호 등 새로운 얼굴들을 중요한 고비에 기용하며 어린 호랑이들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은 선동열 감독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KIA는 지난 2009년 V10을 이룬 후 고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신진선수들을 키워내지 못했다. 성과에 급급해 부상이 있음에도 계속 기용되는 등 혹사당하는 선수가 속출했고, 현재 부상선수들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떤 리더가 훌륭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성과가 뛰어나도 직원들로부터 욕을 먹는 리더가 있고, 후배들은 좋아하지만 실적은 미미한 리더도 있다. 훌륭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는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견의 삼성전자 회장은 위기 때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삼성을 변화시켰다. "우선 먹기는 꽃같이 마음 만든 후 복귀하라고 주문한다. 또 한 박지훈, 윤완주, 이준호 등 새로운 얼굴들을 중요한 고비에 기용하며 어린 호랑이들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은 선동열 감독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KIA는 지난 2009년 V10을 이룬 후 고참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선동열식 리더십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洛榮** 편집국장 **曹茂亮**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지탈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